

#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2,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그는 신약 역사와 문학,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32강의 Dave Mathewson 박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라는 걸 알아요. 집 안에 있기는 힘들죠. 그러니 시간을 내실 만한 가치가 있도록 할게요. 당신이 오면 여기에 종이 한 장을 올려 놓고 거기에 이름을 서명하고 수업이 끝나면 여기에 온 것에 대해 추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충실한 남은 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그 이후에는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끝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적어도 하루는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오늘은 문서 두 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경 순서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시간입니다. 즉, 두 권의 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즉, 하나는 신약성서의 정경 순서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두 권의 책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같은 장소로 보내졌고, 비슷한 시기에 보내졌다는 점에서 그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으며, 기억한다면 신약성경은 어쨌든 연대순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디모데전후서를 볼 때에도 책들이 반드시 기록된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쓴 순서입니다.

바울은 편지 맨 위에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쓰지 않았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명칭입니다. 그것은 대략 때때로 길이에 따라, 또는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연대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연대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제 기록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편지에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와 함께 그 예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드.

유다는 유다서에 대한 설교나 유다서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유다서에 대한 언급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

아버지, 이번 학기에 우리를 이 지점까지 데려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주를 예상하면서 주님, 에너지와 인내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인내하고 너무 지치거나 낙담하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그렇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좋은 날씨와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다른 장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의 작은 부분에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았어, 둘째 피터. 내 컴퓨터가 막 멈췄어요.

베드로 둘째는 우리가 본 여러 바울의 편지처럼 분류될 수 있는 문서 중 하나이며 시험, 특히 최종 시험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중요합니다. 내 질문 중 상당수는 때때로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편지나 문서가 서로 유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연관시키도록 요청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일종의 거짓 가르침이나 일탈적인 가르침을 다루는 바울의 편지들과 특징을 공유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위협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매우 다른 상황을 언급한 베드로전서와는 달리 베드로후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다른 편지들과는 조금 다른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것, 즉 특정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위나 책임을 면제하는 가르침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질문과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것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한 방법 중 하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개론 수업을 기억하신다면, 선지자들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들의 정확한 신분이 무엇이든, 이 교사들은 특히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생활 방식이라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어떤 쾌락, 특히 성적 부도덕에 탐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요 문제 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사악함과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교사들이 바로 이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성적 부도덕이나 그들이 원하는 어떤 쾌락에도 자유롭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자가 다루고 있는 문제이거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따라갈 노트가 오버헤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베드로후서의 장르나 문학적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디모데후서와 마찬가지로 유연장과 유연장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추가 크레딧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베드로후서는 실제로 바울의 독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유언이자 유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세기에 일종의 일반적인 문학적 유형이었고 1세기까지 이어지는 유언장을 말했습니다. 유언은 기본적으로 죽어가는 영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누군가가 마지막 지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도 그와 비슷합니다. 특히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또 너희에게 온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도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려 주신 대로 나의 죽음이나 떠날 것이 곧 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진술에는 유언의 모든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웅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독자들에게 한 말과 가르친 내용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작별 지시를 전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괜찮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디모데후서와 매우 유사한 유언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거짓 교사들 배후에 있는 주요 세력은 그들이 독자들에게 미래의 심판을 거부하도록 가르치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미래의 심판이 없을 것이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목표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부도덕.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목적은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주로 성경과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매우 예언적입니다.

즉, 그는 독자들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상기시키고 전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유다서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거짓 가르침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을 몇 번 더 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일탈한 자,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에서 일탈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윤리적 일탈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후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들이 올바른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행동하는 것도 염려합니다. 또는 일부 사람들이 말했듯이 그는 정통성뿐만 아니라 정통 실천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은 일탈적인 가르침 방식만큼이나 일탈적인 생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메모에 있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교사들의 반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련의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러한 반대에 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의제기입니다. 장과 절이 베드로후서 전체와 일치하지 않지만 저는 단지 각 부분의 핵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제기한 이의와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며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대는 사도들이 1장 16-19절에서 신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반드시 교사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반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리하게 고안된 신화를 따르지 않은 그 문구는 아마도 교사들의 비난 중 하나를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베드로나 바울 등의 사도들은 단지 신화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도적 메시지를 불신함으로써, 그것은 아직 우리의 이미 그러나 아직 긴장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 거짓 교사들은 율법폐기주의를 조장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어떤 종류의 행동 강령이나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이 그에게 들리실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음이라 하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중 적어도 몇 사람이 어디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변형,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변형을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변화되시고 구름에 싸이신 것은 다소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에 그들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자라 하시니라.

피터가 왜 그런 말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거짓을 가르치거나 신화를 가르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변형 사건인데, 실제로는 온갖 구약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별이었고,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 그의 왕국에 영광 중에 오실 때를 미리 예표하거나 일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아니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심판하며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로써 모든 영광과 능력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신화나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그 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미리 보는 일종의 스냅샷과 같은 그리스도를 그들 자신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선지자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마도 이것은 거짓 교사의 반대에 대한

반응이거나 요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들이 단순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예언서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사야 등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날을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은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틀려서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선지자들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묘하게 고안된 예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였고, 하나님께서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묘사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그런 생각을 얻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스타일과 의사소통 방식이 아무리 많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의 메시지가 그들 자신의 결정이나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선포하게 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옳고 옳다면 심판이 있다는 그들의 메시지도 옳으며, 따라서 독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이 제공됩니다.

세 번째 이의 제기, 판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장에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는 이 섹션을 읽지 않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순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실제로 베드로가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를 축적한

것입니다.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을 읽으면 구약성서에서 거의 구약성서 개관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피터의 요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며 그가 미래에 판단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심판하시기 위해 자주 개입하셨음을 보려면 구약성경만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네 번째 이의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사도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한동안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심판이 없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지연되나요? 이번에도 베드로의 대답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는 내가 8절부터 10절까지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약속에 관하여 여러분 중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더디시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를 사용하여,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이 풀어지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행해진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대답은, 흥미롭게도 하루의 언어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느린 것은 우리의 느린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생각하든 적어도 Peter는 지연이 있다는 사실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지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오는 심판 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때 피터의 전략은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교사들과 싸우는 것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은 거짓 교사들의 일련의 반대나 가능한 반대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독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묻고 실제로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심판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덕률 위반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 베드로후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후서가 아마도 신약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베드로가 쓴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데 동의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베드로후서를 썼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비교할 때 때로는 영어 번역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헬라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 신약성서를 주었고 여러분의 능력이 상당히 유창했다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베드로전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후서의 글쓰기 스타일, 그리스어 유형, 어휘가 베드로전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쓸 수 없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방금 베드로후서가 성서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략 2세기 또는 1세기 이전 몇 세기부터 1세기 및 그 이후까지 죽어가는 영웅의 마지막 말을 기록한 유연장 문학, 유연장이라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후서에서 찾을 수 있는 윤리적, 때로는 예언적, 종말론적 교훈이 모두 포함됩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성서는 가명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성서, 이삭의 성서, 야곱의 성서라는 제목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 열두 족장의 유연장, 모세의 유연장, 엘리야의 유연장,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독자들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거나 속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단지 인식 가능한 장르나 문학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 글을 쓰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후서가 다른 성서와 마찬가지로 성서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아마도 가명일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모세의 이름이나 과거에 잘 알려진 이삭의 이름으로 쓴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자들은 Peter가 실제로 이 글을 썼다고, 저자가 그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표준 문학적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베드로후서가 가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부 학자들이 초기 카톨릭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학자들이 초기 카톨릭교라고 부르는 기독교 내 운동인 1세기와 2세기의 문헌을 확인하고 놀릴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1세기 후반과 2세기에 교회가 삶에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신앙과 사고, 그리고 교회의 상태에 대한 표시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가 즉시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제도화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기 카톨릭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톨릭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와 관련하여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단순히 보편적인 교회,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의 모음집이 흔히 일반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서신의 또 다른 이름은 가톨릭 서신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이 더 광범위하게 교회, 즉 보편 교회인 가톨릭 교회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초기 카톨릭교, 즉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 정착하고 확립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초기 천주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종종 생각되어 왔습니다. 즉, 1세기 말과 2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대한 믿음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곧 돌아오는 것이 쇠퇴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믿음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매우 초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생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지체하고 그리스도께서 즉시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뒷전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세상에서 삶을 살기 위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초기 카톨릭의 또 다른 특징은 교회의 제도화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즉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는 집사, 감독, 계층 구조 등을 통해 더욱 제도화되고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교회가 고수하고 지지할 상당히 정해진 종류의 신념 체계를 가질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베드로후서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론은 이 세 가지 아이디어가 모두 1세기 후반, 2세기까지 한동안 존재했던 교회를 나타내고 이 아이디어가 모두 2세기에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피터, 그렇다면 이것은 피터 자신이 가질 수도 없고 쓰지도 않은 후기 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다루고 싶지 않지만, 첫째, 교회가 실제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바꾸었는지 정말로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첫 번째가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재림의 지연과 임박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즉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늦었다고 생각되는 일부 문서에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 반드시 시야에서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들의 존재보다 범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신약성경 문서 중 일부에서 교회의 제도화와 신앙의 결정화를 모두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 문서가 훨씬 나중에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충분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확실히 썼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책이지만,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왜 자신의 성서를 쓸 수 없었습니까?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전서와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가 썼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가 썼다는 사실을 부인할 만한 좋은 증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증언은 베드로가 실제로 그것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를 쓴 바로 그 사람, 예수 사도 베드로도 이 책을 썼다는 가정을 가지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뿐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피터가 이 글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는 통계조차 어렵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바울이 항상 썼던 방식이거나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실히 결론짓는 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썼을지 또는 쓸 수 있었는지에 관해 기본적으로 베드로 1서와 2서만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다음 책으로의 전환으로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책인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유다서 다음 책으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전환으로서 흥미롭게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비교해 보면 곧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사점은 종종 마태, 마가, 누가의 동의 정도와 동일합니다.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특정 부분 사이에는 어휘와 표현에 있어서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우리가 질문을 제기할 만큼 충분히 큼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둘 다 갖고 있던 비슷한 전통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차용했거나, 빌린 문서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더 합의되는

것은 아마도 유다서가 먼저 기록되고 베드로후서가 유다서의 대부분을 활용했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다서의 대부분은 베드로후서에서 찾을 수 있지만, 베드로후서에는 유다서가 아닌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후서나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유다서에 접근하여 유다서를 활용했거나 최소한 유다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 모음에 접근하여 그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재료도 그렇고. 나는 아마도 유다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활용했지만 다른 자료를 사용했다고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다가 베드로후서에서 빌린 것이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이것이 유사점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그 읽기에서 유다서가 베드로후서와 매우 유사하지만 베드로를 많이 생략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베드로의 일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을까요? Peter가 Jude 전체를 사용했지만 자신의 자료 중 일부를 확장하고 추가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나오는 책들의 순서가 반드시 그 책들이 기록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반적인 견해는 유다가 먼저 기록되고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히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분명한 질문은 왜 유다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좀 질문을 드리자면 꼭 노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다서 같은 책이 왜 신약성서에 포함되었습니까? 특히 우리가 말했듯이 이미 많은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후서에서 유다서의 거의 모든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유다서 같은 책이 여러분이 읽은 책 중 가장 이상한 책 중 하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제가 신약에서 읽은 책입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다서 에는 매우 이상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들어보세요.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Jude가 쓴 방식입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한 백성을 애굽 땅에서 단 한 번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하고 깊은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음행에 빠지고 부자연스러운 욕심을 좇아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자들을 비방하였느니라.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에는 감히 고소하지 못하였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서의 전체 부분에는 이와 같은 다소 이상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결성 때문에, 어쨌든 대부분이 이미 베드로후서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책이 왜 신약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문제의 일부는 Jude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것을 들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엘리슨은 그럴 것이다. 예수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매우 흡사하여 신약성경의 정경에 포함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므로 그의 책이 신약성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좋은. 이제 유다서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유다서가 베드로후서와 동일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유다서 역시 베드로후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덕률 폐기론 유형의 가르침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책임이나 권한 없이 온갖 성적 부도덕을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욕망과 쾌락에 탐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뒤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확히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 정확한 독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아마도 유대인 유형에 더 가까웠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당신이 읽는 종류의 생활 방식을 홍보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들, 유다가 선생들에 대한 꼬리표입니다.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사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우리는 유다서를 읽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의 교사들처럼 그들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 대신 권위 아래 살지 않고 원하는 모든 정욕과 쾌락에 탐닉하며 결과적으로 판단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반율법주의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유다서에서는 다가오는 심판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다서에서도 유다는 초기 기독교에서 신약성서가 아닌 많은 문서를 읽기 시작할 때 초기 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일종의 순회 설교자와 같은 종류의 개인 그룹이었다고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로 가서 다양한 가르침을 장려하고 유다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실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Jude가 누구에게 말하든 그의 독자들이 이곳 저곳을 이동하며 돌아다니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률 폐기론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순회 설교자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 우리는 판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대로 살 수 있고 선택한 모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처럼 유다는 독자들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것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절을 보면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나누는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편지할 것을 간절히 준비하면서 3절에 요약되어 있는 것 같으니 이는 유다가 분명히 앉아서 편지를 쓰려 했음을 암시하는 것 같으니 그러나 이제 그는 문제가 되는 이 정보를 받았고 이제 그는 코스를 바꾸고 다른 것을 쓸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나눈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중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편지하여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것이 유다의 목적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가 믿음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지만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체계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윤리와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아마도 이 도덕률 폐기론을 가르치는 순회 교사들은 그들에게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대신에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 경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Jude가 이 일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편지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다가 이 일을 하는 방식, 즉 그가 이 도덕률 폐기론적 영향에 저항하고 믿음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방식은 2장의 베드로후서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들은 구약성서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유다서의 거의 전체가 구약성서의 이야기 목록입니다. 둘째, 그것들은 모두 악하고 악한 행동, 특히 부도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절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본 첫 번째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5절, 유다서는 한 장만 있으므로 1장, 2장이 없고 모두 절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여호와께서 한 백성을 애굽에서 단번에 구원하신 이가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나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들을 멸하셨고, 기본적으로 그들을 죽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러므로 유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반역함을 인하여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계속하여 이르시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들아, 그러나 자기들의 본거지를 떠나 영원한 결박과 심판에 가두셨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에 빠지고 부도덕한 욕심을 좇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것은 야고보의 예의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특히 부도덕한 분야에서 반역한 사람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도덕률 폐기론적인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한다는 사실을 더 잘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심판하셨다면, 구약에서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주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몇 가지 예를 제공했다는 것을 메모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이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을 기억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반역한 영들이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갇혀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창세기 6장을 해석한 유대 문학의 전통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같은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후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6절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약간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6절은 유대인 문학에서 해석된 창세기 6장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지위를 어기고 하나님의 경계를 범하였으므로 심판 중에 쇠사슬에 갇혀 마지막 심판 날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그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그가 증명하고 싶은 것, 즉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이나 권위를 좌절시키는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 무서운 결과, 즉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의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에 감히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질문은, 그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먼저, 구약성서에서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어디서 읽습니까? 거기가 어디인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네, 신명기, 신명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실제로 실제 죽음에 대해 많이 읽지 않거나 모세의 장례에 관한 내용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신명기를 읽고, 구약 전체를 읽고, 어디에서나 이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특히 신명기에는 대천사 미가엘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그에 대해 읽었습니다.

당신은 요한계시록과 다른 유대 문헌에서 그에 관해 읽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신명기에서는 대천사 미가엘이 모세가 죽은 후 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Jude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걸 지어낸 걸까요? 아니면 구약의 일부가 빠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는 이것을 어디서 얻나요? 사실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는 없는 유대의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서와 아브라함의 성서, 이삭의 성서와 같은 성서 문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와 디모데후서가 성서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쓰여진 다른 문헌에 따르면, 모세의 성서에는 한때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결말이 있었는데,

그 결말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유다는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일부 이야기와 다른 유대 문학이 구약성서를 해석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가십시오. 당신은 그 내용이나 구약 전체를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논쟁을 벌인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영어 번역본을 실제로 읽을 수 있는 모세의 성서라고 불리는 작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라졌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쓰여진 다른 문헌에 따르면, 한때 모세의 성서에는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로 결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Jude가 그 증거를 얻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듯이 이 모든 이야기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중 일부가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이야기의 전반적인 기능은 유다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악과 불의를 심판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율법폐기적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유다가 24절에서 끝나듯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부르심은 당신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즉, 그들이 싸워야 할 믿음, 즉 순종, 윤리, 거룩함을 포함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그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이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이 독자를 위한 그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율법폐기주의 교사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과

사악함을 심판하시는 구약의 예들을 마음에 새기고, 대신에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대신 어느 날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흠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괜찮은. 주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주 짧은 책이 있어요.

혹시 유다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질문이요? 그렇다면 왜 둘이 있는 걸까요? 왜 피터와 유다가 있었나요? 네, 글썄요, 유다를 포함시킨 주된 이유는 주로 유다가 예수의 형제였음을 입증하는 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더 넓은 정경 내에서 그것이 하는 일 중 하나는 교회가 도덕률 폐기론과 권위와 불순종에 대한 거부를 용납하지 않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서가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피터가 하는 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로, 나는 유다가 신약성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한 예수의 형제로서의 영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괜찮은.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지금 당장 꼭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목요일에는 추가 신용 검토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역사와 문학,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32번 강의의 Dave Mathewson 박사였습니다.